

러일전쟁기 영일동맹이 일본해군의 승전에 미친 영향

金 泰 俊
(국방대학교 교수)

- 머 리 말
- 영일동맹 결성의 배경
-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 견제
- 영국의 일본 해군력 증강지원
- 러시아 함대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 견제
- 맺 음 말

1. 머 리 말

국제정치에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의 시기는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식민지 쟁탈 또는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진행하고 있었던 때이다. 당시 열강들이 극동으로 진출하면서 나타난 국제정치 질서의 특징은 어느 한 열강이 다른

열강의 도전을 일방적으로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동맹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일본이 랴오둥(遼東)반도를 청으로부터 할양받자 러시아가 삼국간섭(1895. 4)을 통해 일본을 견제했다. 일본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지원한 삼국간섭에 굴복하고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함으로써 주요 전리품을 상실하고 국제적 고립의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삼국간섭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불리했던 일본에게 동맹 없이는 러시아를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관련된 만한문제(滿韓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타협이 어려워지자, 영국에 접근하여 영일동맹(1902)¹⁾을 성사시켰다. 영일동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당시 세계의 일등국으로 대우받던 영국과 동양의 소국인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둘째, 일본이 영일동맹을 이용하여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압도함으로써 일약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보면, 영일동맹이 러일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同盟이 戰爭史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이다.

러일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은 전쟁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전쟁원인론과 승패에 관련된 전쟁결과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인류평화에 저해가 되는 전쟁의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쟁원인론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전장에서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들은 전쟁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 일반화된 러일전쟁 원인에 관한 전통적인 의견은 3가지, 즉 일본의 북진정책, 러시아의 남하정책, 그리고 베조브라조프(A. M. Bezobrazov) 일파의 모험주의 노선이다.²⁾ 일본의 북진정

1) 1차 영일동맹의 핵심내용은 ‘일방이 하나의 적국과 교전할 경우에는 타방은 중립을 지키고 제3국이 적국에 가세할 경우에 동맹국도 참전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방어동맹이다. 영국과 일본은 3차에 걸쳐 동맹을 체결하여 약 20년간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실리를 추구했다. 1차 영일동맹은 러일전쟁 전인 1902년 1월 30일, 2차는 1905년 8월에 그리고 3차는 1911년 7월에 체결되었다.

책과 러시아의 남하정책이 양립할 수 없었기에 양국의 갈등은 필연적이었고 베조브라조프의 주장으로 러시아가 극동의 군사력을 증강시켜 일본을 자극하였다는 점에서 전쟁발발을 촉진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이유들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굴복했던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전쟁을 결정했다(1904. 2)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삼국간섭 당시와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공격하기 까지 약 9년 동안 일본은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군사력을 약 2배정도 증강시켰다.³⁾ 이 두 가지 변화 요소도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일동맹이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동맹은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는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을 이용하고 있다. 영일동맹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외교사적으로 동맹결성의 필요성과 동맹결성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영일동맹이 러일전쟁 이전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키고, 전쟁수행 과정과 전쟁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戰史的인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사적 관점에서 러일전쟁 당시 영국과 일본의 동맹결성에 대한 배경을 고찰하고, 영일동맹이 일본의 전략환경을 어떻게 조성시키고 전쟁에서 일본해군이 승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영국이 왜 고립정책을 버리고 일본과 동맹을 모색하게 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극동에서 러일대

2) 베조브라조프 일파의 모험주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강성학,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pp. 249~251 참조.

3) 일본자료는 10년 동안 일본 군사력이 2배로 증강되었다고 주장한다.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 著, 嚴秀鉉 譯 『日本軍事史』(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pp. 119~121, 이에 반해 러시아 자료(Левицкий. 1938: 19)는 일본의 군사력이 2.5배 증강되었다고 주장한다. 심현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p. 297.

립에 영국이 개입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영일동맹이 러일전쟁을 촉발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러일전쟁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기존 주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셋째, 러일전쟁에서 영일동맹의 구체적 역할 즉,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인 견제, 영국의 일본 해군력 증강에 대한 지원 그리고 러시아합대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 견제 등에 관한 연구들은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보다 심도 있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⁴⁾ 따라서 본 연구는 영일동맹이 전쟁 이전에 어떻게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시키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과 전쟁결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 주는 실증적 사례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영일동맹 결성의 배경

(1) 동맹에 대한 영국의 필요성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극동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영국의 세계정책에 위협이 되었다. 독일의 거대한 경제력은 영국에 필적할 만한 것이 되었고 러시아와 프랑스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추구했으며 거의 모든 곳에서 영국에 도전하고 있었다. 유럽대륙에서는 프랑스, 독일

4) 러일전쟁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외에 상당수가 있지만 주로 외교사적 관점, 전쟁원인과 전쟁결과론에 치중되어 있다. 러일전쟁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에서 최근 개최된 학술회의와 연구내용은 현대일본학회 등이 주최한 “러일전쟁 100주년 회고와 21세기 일본,”(2004. 5. 21);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등이 주최한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역사적 성격과 현대적 의미”(2004. 11. 19~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軍史』 제51호(2004. 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논문들도 러일전쟁 기간 동안 영일동맹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빈번히 갈등을 겪었지만 해외에서는 언제나 영국과 충돌했다. 아울러 미국의 점증하는 힘 때문에 영국이 서반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솔즈베리(Cecil Salisbury) 수상은 영국과 무관한 전쟁에 말려드는 것보다는 고립이 훨씬 덜 위험하다고 생각했다.⁵⁾ 따라서 영국 외교의 주 목표는 전쟁에 개입을 피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영국은 특별한 우방도 특별한 적도 가지지 않는 ‘영광된 고립 정책(Splendid Isolation)⁶⁾을 유지했다.

영국은 1899년 보어(Boer)공화국을 진압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면서 국력 소모를 많이 했고 독일해군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더 이상 “두 국가기준(Two Power Standard)⁷⁾이란 해군력 보유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어 가고 있었다. 당시 영국 식민상이었던 챔벌린(Josep Chamberlain)은 고립정책을 고수해서는 영국의 곤란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맹체제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광된 고립정책으로부터 탈피를 주장했다.⁸⁾ 아울러 상당수의 영국인들도 자국의 존립이 위협에 직면했고, 군사력 약세로 인하여 타국으로부터 적대행위를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보어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영국의 해군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기존 외교노선에 대한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솔즈베리 수상이 더 이상 영광된 고립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 당시 영국의 주요한 두 가지 국가이익은 인도제국 보존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의 국가이익들은 아시아에서

5) C. H. D. Howard, “The Policy of Isolation,” *Historical Journal*, Vol. 10, No. 1, 1967, p. 67.

6) Bernard Porter, *The Lion's Share* (London: Longman, 1975), pp. 72~73.

7) 두 국가기준이란, 영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두 나라의 해군을 합친 만큼의 함대를 보유한다는 영국 해군력 보유의 원칙을 의미한다.

8) George Monger, *The End of Isolation*(London: Thomas Nelson and Sons Ltd., 1963), pp. 20~21.

러시아의 팽창주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었다.⁹⁾ 영국은 1891년에 착공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러시아의 태평양진출을 기도하는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다. 러시아는 1898년부터 해군력을 대규모로 증강시키면서 블라디보스톡과 뤼순항을 군항으로 개발하여 전투함들을 극동으로 이동시켜 배치하자 영국은 극동에서 해군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해군력에 상응하는 전투함대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1899년 10월 남아프리카의 보어 전쟁발발 이래 유럽에서 영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다른 곳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미국의 새 해군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영국은 새로운 동맹국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열강들이 극동으로 진출하면서 중국분할 경쟁이 시작되었다. 독일이 1897년 11월 자오저우만(膠州灣)을 점령하자 러시아는 동년 12월 뤼순을 점령하였다. 이어 영국은 러시아의 랴오똥반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하여 웨이하이웨이(威海衛)와 주룽반도(九龍半島)를 조차하고 양쯔강 유역을 영국의 세력범위로 만들었으며 프랑스는 광저우만(廣州灣)을 조차했다. 당시 일본의 정책도 滿韓交換論에 입각하여 러시아와 협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기에 영국은 러시아의 만주점령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영국은 처음에 독일을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다. 독일 또한 영국과 러시아의 타협을 두려워하고 양쯔강(揚子江)의 문호개방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영국과 협정하는 것이 이익이라 판단하여 영독협정(1900. 10), 소위 양쯔강 협정을 맺었다.¹⁰⁾ 그러나 이 협정을 만주에 적용하느냐의 문제로 영국과 독일간에 이견이 생겼다. 만주가 협정범위 밖이라는 독일의 주장으로 인하여 영국은 결국 독일로 하여금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balancing)하기 위해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일본에게 편승(bandwagoning)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9) 강성학, 전제서, p. 163.

10) 植田捷雄, 『東洋外交史(上)』(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9), p. 199.

(2) 동맹에 대한 일본의 필요성

1890년 제1회 제국의회 개최식 연설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은 “일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주권선’인 국경을 수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필히 ‘이익선’, 즉 ‘주권의 안위에 깊은 관계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주장하였다.¹¹⁾ 당시 이익선의 의미는 일본에 인접한 조선을 말하며, 조선을 보호한다는 것은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였던 청국과 필요할 경우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1894년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발생하자 일본은 주권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익선의 확보 즉,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국과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¹²⁾

이러한 ‘이익선의 확보’라는 개념은 청일전쟁 전부터 러일전쟁까지 일본 외교목표의 핵심내용이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어 국제정치의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국익을 지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서구 열강들과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이들과 협력관계를 맺어 일본의 이익선 확보를 인정받고자 했다.¹³⁾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이권 확보가 서구 열강들로부터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일본에 간섭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랴오둥반도를 점령하자, 러시아가 곧 삼국간섭을 주도함으로써 일본이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삼국간섭 체제를 주도하고 있던 러시아에 비해 동맹관

11) 上山春平, 『大東亞戰爭の遺産』(東京:中央公論社, 1972), p. 62.

12) 당시 야마가타는 만약 러시아가 시베리아철도를 완공할 경우 조선의 독립도 크게 위협받게 되어 일본의 주권선은 머리 위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위협을 당하는 형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저, 이성환 역, 『일본의 외교』(서울: 푸른산, 1993) p. 46.

13) 박한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일본 외교이념의 흐름(1868~1945)”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년, p. 92.

계는 물론 군사적으로 열세한 형편이어서 이들과 대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했다.

만주와 한반도는 일본에게 국가이익이 걸린 지역으로 대단히 중요했기에 러시아의 이 지역진출은 일본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영국은 물론 일본에게도 정치·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던 이유는, 철도가 완공된다면 군사력과 물자수송이 극동지역까지 쉽게 연결될 것이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일본은 전쟁을 통해 획득했지만 외교적 압력으로 청에 반환한 랴오둥반도를 러시아가 다시 차지하자(1897. 12) 일본은 러시아를 북방의 적으로 규정했다.¹⁴⁾ 일본은 랴오둥반도의 반환과 같은 굴욕적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러시아를 가상적으로 삼고 군사확장계획을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은 자국의 현대화를 도울 수 있는 서방국가와 친선을 유지하고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제3국의 간섭을 막아 줄 수 있는 국가와 동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1895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전함 4척과 다수의 보조함 건조를 영국에 주문한 것은 영국인들에게 일본의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영일동맹을 성사시키는 긍정적인 무드를 조성하였다.¹⁵⁾

을미사변(1895. 10) 이후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주러공사는 러시아와 충돌을 피하고 조선에서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협을 한 결과 1896년 5월 4일의 웨베르·고무라(Weber·Komura) 협약과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Robanov-Yamagata) 협약이 체결되었다.¹⁶⁾ 이토(伊藤博

14) 1902년의 고다마(兒王) 보고서는 전 극동지역의 정복계획서이며, 이것은 1927년 다나카 청원서에서 세계정복계획으로 확대되었다. 고다마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George Ker, Kodama Report: Plan for Conquest,” *Far Eastern Survey*, Vol. 14, July 18, 1945, pp. 185~190 참고.

15) 外交時報社, 『支那の關係條約集』(東京: 外交時報社, 1930), pp. 645~646.

16) 야마가타는 이 협정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내 세력권을 양분하되, 그 구분선은 북위 39도 선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Hilary Conroy, *The Japanese Seizure of Korea: 1868~1910*,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0), pp.

文) 정부의 니시 도쿠지로(西德二郎) 외상은 滿韓交換論(1899. 3)을 제안했으나 러시아 군부가 연해주에 안전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조선에서의 어떠한 양보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와 협상을 계속하여 1898년 4월 로젠-니시(Rosen-Nish) 협의안을 성사시켰다.¹⁷⁾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1900. 6)이 발생하자 러시아가 만주의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병력을 만주에 진입시켰으며 의화단 사건이 진압된 이후에도 병력철수를 거부했다. 일본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러시아에 대해 개전을 주장하는 주전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와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과 제휴하여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노선을 결정해야 했다.

러일협상과는 소수였지만 야마가타, 이토 수상 등 유력한 원로의 지지를 받아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노선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일동맹을 실현시키기 보다는 러일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먼저, 영국은 아직 영광된 고립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과 동맹을 체결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 둘째, 동맹을 체결하더라도 극동에서 일본이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면 아주 위험하다는 점, 셋째, 일본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형편에서 영일동맹은 러시아와 전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¹⁸⁾ 이에 반하여 니시 외상, 고무라 주리공사 등 親英派는 영국과 제휴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¹⁹⁾

1901년 6월 이토가 물러나고 강력한 영일동맹론자인 가쓰라(桂太郎) 수상이 취임하면서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한반도의 남쪽에 발판을 놓으려는 어떠한 기도에도 반대하며 전쟁도 불사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

323~325 참조.

17) 이 협정은 러시아가 반대하는 만주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과 러시아 간의 권리의 균형을 재확인했다.

18)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東京: 鹿島研究, 出版所, 1957), pp. 234~236.

19) W. G. Beasley, *The Modern History of Japan* (New York: Praeger, 1962), pp. 166~170.

에 따라 일본의 외교노선도 영일동맹으로 기울었으며 1902년 1월 30일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베조브라조프 일파의 전진정책(前進政策)이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는 만주에서 예정된 2차 철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03년 8월부터 재개된 일본과의 교섭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베조프라조프는 독일과 협력하여 영국의 일본지원을 봉쇄하면 일본을 조선의 남쪽에 국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의 전진정책을 추진해 나갔다.²⁰⁾ 그러나 일본의 교섭자세도 점차 강경하게 변했으며 조선에 관한 한 어떠한 양보도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본은 러시아와 타협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1904년 1월 12일 러시아에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3.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 견제

(1)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²¹⁾를 통한 영국의 러시아 남진견제

삼국간섭 이후 독일은 자국 선교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것을 빌미로 독일함대를 파견하여 1897년 11월 14일 마침내 자오저우만을 점령했다. 독일의 자오저우만 점령소식을 접하자 러시아도 1897년 12월 11일 뤼순항(旅順港)을 점령하고 이듬해 3월 27일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뤼순(旅順)과 다롄(大連)을 조차하고 뤼순항을 군항으로 만들었다. 당시 청은 러시아에게 동청철도회사에 허여한(1896) 이권을 확장하여 다롄에 이르는 지선

20) 歷史學會 編, 『露日戰爭前後 日本의 韓國侵略』(서울: 일조각, 1986), pp. 57~58.

21) 포함외교는 군함의 힘을 이용한 해군외교이며 일종의 강압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불(Hudley Bull) 교수는 포함외교를 “해군력에 의한 외교적 형태로서 이는 무력행사로 자국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Jonadan Alford, *Sea Power and Influence* (London: IISS, 1980), p. 8.

을 증설하는 권한마저 인정해주었다.²²⁾ 그리고 러시아는 청과 조약을 통해 시베리아철도와 동청철도를 연결하는 지선의 종점을 뤼순 및 다렌으로 하고, 이 철도의 통과 지역에서는 타국에 철도이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조차지 안에서는 러시아의 행정이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청은 러시아에게 조차지 내에서의 관세를 결정권까지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조차지 내에서는 물론 중국 내륙 사이를 출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청의 세금 부과 및 징수권은 전면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²³⁾

만주에서 철도부설권과 관세결정권까지 갖게 된 러시아는 타국 상품에 대해 마음대로 비싼 철도요금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러시아의 만주시장 독점이자 다른 열강에 대한 문호폐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문호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의 반발도 샀다. 한편 러시아는 뤼순을 점령하기 약 1개월 전(1897. 10. 25) 고위 세무관리 알렉세예프(Kir Alekseevich Alekseev)를 조선으로 파견하여 주한 공사 스페이르(Alexis de Speyer)와 협력하여 영국인 총세무사 브라운(McLeavy Brown)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²⁴⁾ 조선에서 알렉세예프가 완전히 득세한 것은 1897년 11월 10일이며(12.10) 이어서 러시아 함대가 뤼순·다렌을 점령하자 일본은 러시아가 만주와 한국을 동시에 침략하려는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던 중 러시아가 주동이 된 삼국간섭의 강압에 못 이겨 일본이 청에 반환한 뤼순·다렌을 러시아가 다시 가로채자 일본은 러시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했다.²⁵⁾

당시 영국은 청의 대외무역 총액의 65%를 점하고 있었다. 청에서 거래되는 외국 상품의 약 85%가 영국선박으로 수송될 정도로 영국은 청에서

22) Paul Clyde, *International Rivalries in Manchuria 1689~1922*(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27), p. 72.

23) Clyde, *Ibid.*, p. 73.

24) Susan Wilour Jones, *Russia in Manchuria 1892~1906*(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52), p. 130.

25) 崔文衡, 『각축』(서울: 지식산업사, 2001), p. 237.

이미 다른 열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다.²⁶⁾ 이러한 가운데 독일과 러시아의 조차지 획득은 영국의 방대한 이익에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러시아와 독일은 중국분할 점령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었기에 삼국간섭처럼 이들이 다시 단합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면서 자국의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이해를 공유하는 일본과 제휴를 모색했다.

영국 식민상 챔벌린이 일본과 제휴를 위해 접근을 시도 했다. 그는 주영 일본공사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공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을 유효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귀국과 우리의 이해는 서로 일치하고 있어 제휴하여 일을 처리해야 할 상황에 있다... 그런데 아직 귀국은 영국정부에 대해 아무런 제안이 없다. 나는 이 점을 지극히 의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²⁷⁾ 이에 가토는 “러시아가 철도를 다렌까지 연결하고 뤄순을 멋대로 사용하는 데 공동 항의하자”고 제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함대가 공동으로 시위를 벌였으면 한다”고까지 했다.²⁸⁾ 이어 챔벌린은 가토에게 러시아의 남진에 대처하고, 청의 배상금 완불보장을 위해 일본이 담보로 점령하고 있는 웨이하이웨이를 넘겨받기 위한 협의를 정식으로 제의했다.

1898년 4월 2일 주일 영국공사 사토(Sir Ernest Satow)가 일본정부로부터 웨이하이웨이에 대한 명도승인 허가를 받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은 영국과 동맹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처할 수 있는 웨이하이웨이라는 거점을 일본으로부터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영국은 동양함대를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견제

26) A. Whitney Griswold,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Bosto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 39.

27) 『日本外交文書』 31-1, No.241, pp. 267~270.

28) 『日本外交文書』 31-1, No.241, pp. 267~270/No.358, pp. 400~401.

도 했다. 당시는 영국인 총세무사 브라운이 러시아의 알렉세예프에게 밀려 나서(1897. 10. 25) 한반도가 사실상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한 영국영사 조던(J. N. Jordan)이 브라운의 복직을 한국 정부에 강압하기 위해 영국 동양함대의 제물포 파견을 요청하자 영국정부는 1897년 11월 27일 동양함대를 제물포에 배치했다. “뒤순 바로 남쪽에 위치한 제물포에 근거를 두고 러시아 함대의 동태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동양함대 사령관 빌러(Büller)제독에게 하달된 영국정부의 비밀명령은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제물포 무력시위에 참가했던 8척의 영국 군함 가운데 2척은 한반도에서 임무를 마친 뒤 뒤순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러시아함대와 함께 월동했던 사실도 영국의 의도가 러시아 남하저지에 있었음을 뒷받침 한다.²⁹⁾ 웨이하이웨이(威海衛)는 지리적으로 독일의 자오저우만을 배후에서 견제하기도 용이하며 발해만(渤海灣)을 사이에 두고 뒤순항과 마주보고 있어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는데 대단히 유리한 위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영국은 동양함대를 통해 뒤순 바로 남쪽인 제물포에 거점을 두고 제물포-웨이하이웨이 선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차단하면서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영국이 해군력을 이용한 포함외교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2)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 견제

영일동맹은 러프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독일의 간섭 가능성도 배제시켰으며, 일본은 미국과 문호개방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러시아에 대항하는 준동맹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하여 영일동맹은 러시아에게 유리했던 삼국간섭체제를 와해시킴으로써 러시아에게는 불리한 반면 일본에게는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시켰다.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러시아는 러·프·독의

29) A. Malozemoff, *Russian Far Eastern Policy, 1882~1904*(Berkeley, 1958), pp. 105~107.

삼국이 공동으로 영일동맹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독일과 프랑스에 전달했다. 그러나 영국의 해양력을 고려하면 삼국공조는 독일의 해상교통로를 더 취약하게 할 우려가 있고, 미국으로 하여금 영일동맹에 합류하도록 고무시킴으로써 독일에게 위협한 국제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독일은 러일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엄격한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³⁰⁾

삼국 공동대응을 위한 러시아의 요청에 대해 프랑스도 독일처럼 중립을 선언했다. 프랑스는 1894년 이래 러시아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모로코 문제해결을 위해 델카세(T. Delcasse) 외상이 1902년부터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에 입장이 난처했다.³¹⁾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필요성이었던 반면, 러시아는 프랑스의 자본유치와 영국과의 대립에 대비한 것이다. 러시아가 극동문제에 몰두하게 되면, 결국 유럽에서의 동맹체제는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또한 동맹관계상 러시아와 일본간의 국지분쟁에 말려들면, 프랑스는 영국과 직접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독일에게 어부지리(漁父之利)만 제공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을 견제하면서 영국과 충돌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에 중립의 입장을 밝혔다.

영국도 전쟁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와 같은 입장이었다. 프랑스가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가 영국에게 정면대립을 주저할 것이라는 점에서 영국은 프랑스가 러시아 행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30) John Albert White, *The Diplomacy of the Russo-Japanese Wa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 93.

31) 프랑스가 모로코 경영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나 열강들이 인정하지 않았다. 프랑스는 1900년 각서교환으로 이탈리아의 인정을 받았지만, 스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영국의 동의 없이는 스페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프랑스는 1902년 6월 이 문제해결을 위해 영국에 교섭을 제의하고 1903년 7월부터 교섭하여 1904년 4월에 영불협상을 체결했다. 김용구, 『세계외교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357~358.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판단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일동맹을 체결한 이후 영국은 프랑스와 화해를 모색했으며, 러일간의 대립에 휘말려 들지 않기를 원했던 프랑스도 영국에 접근하여 1904년 11월 우호협상(Entente Cordiale)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프랑스에게 러일간의 분쟁시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은 청국에서, 일본은 조선에서 우월권을 인정받았다는 점과 나아가 영국이 일본에 인정해 준 권리와 그 이익을 지키는데 영국이라는 제3국이 지원을 보장했다는 점은 러일간 대립구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고무라 외상도 “영국과 연합하여 그 공동의 세력을 이용함으로써 러시아로 하여금 부득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게 함이 한국문제 해결에 있어 최선의 수단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²⁾ 이처럼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영일동맹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만주철병을 요구했다. 영일동맹체결 후 러시아에서는 일본에 대한 강경파가 후퇴하고 비테 장상, 람스도르프 외상, 크로파트킨 육상 등 온건파가 대두되었으며 이들의 주장에 따라 청국정부와 1902년 4월 ‘만주환부에 관한 러청조약’을 통해 3단계 병력철수를 약속하고 먼저 1단계 병력을 철수시켰다.³³⁾ 비록 2단계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요구에 일단 러시아가 만주에서 철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은 영일동맹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다.

삼국간섭 이후 지속되어 온 러일대립 구도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열세했던 시기에는 일본이 협상에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게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이 영국의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러시아를 상대로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32) 吉屋哲夫, 『日露戦争』(東京: 中央公論社, 昭和 53年), pp. 55~56.

33) 강경파인 베조브라조프 국무비서, 플레베 내상 등이 니콜라스 2세의 신임을 얻고 다시 실권을 장악하자 2단계 철병을 반대하고 평텐성 남부와 지린성 전역을 계속 점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만주와 조선을 계속 점령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모험주의가 러·일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김용구, 전계서, pp. 432~433.

1903년 4월 21일 야마가타의 저택인 무린암(無隣庵)에서 가쓰라, 이토, 고 무라 등 4명은 조선에 관한 한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협상 기본 원칙을 정했다. 이후 일본의 협상자세는 더욱 강경해졌으며, “러시아가 조선에서 일본의 탁월한 이익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을 만주에서 청과의 조약권 범위로 제한시킨다”는 원칙으로까지 발전하였다.³⁴⁾ 이것은 일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만한교환론 이상의 것을 러시아에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일본의 협상자세가 더욱 강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강경해진 일본의 자세는 러시아와 타협보다는 충돌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영일동맹은 러일전쟁을 촉발시킨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영국의 일본 해군력 증강지원

1890년대 초 일본과 러시아의 국력을 비교하기 위해 가용한 자료인 국토 면적, 인구, 군사력 그리고 산업능력을 통해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요소를 기준으로 일본과 러시아의 국력을 비교하면 러일전쟁 이전의 일본은 러시아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였다. 러시아의 인구는 일본의 약 2.8배인 1억1천6백만 명이었고 국토면적은 약 5.8배 그리고 군사력도 러시아 육군은 일본의 약 13배, 해군은 3.9배(톤수기준)였다. 일본의 산업능력은 1901년에 생산이 시작된 야와타 제철소를 시작으로 1914년에야 겨우 1천 톤급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었을 정도였던 반면에 러시아는 1904년 이전에 1만 톤급 이상의 전함을 건조할 수 있었다.³⁵⁾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일본의 군사력과 산업능력은 물론 전반적인 국력이 러시아에 비해 훨씬 뒤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34) Ian Nish, *Japanese Foreign Policy 1869~1942*(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Ltd., 1977), p. 72.

35) W. C. 비즐리 지음, 『일본 근현대사』, 장인성 옮김(서울 : 을유문화사, 1996), pp. 147~151.

<표 1> 1890년대 초 일본과 러시아 국력 비교

국 명	면 적 (1천km ²)	인 구 (백만명)	인구밀도 (km ²)	군 사 력		공업생산력(백만톤)		
				육군(명)	해군(천톤)	석 탄	철광석	
일 본	381	40.8	107	63,000	11(57)	2	0.06	
러 시 아	유 럽	5,447	98	18	814,000	46(304)	6.0	1.7
	아시아	16,553	18		30,000			
	합	22,000	116		844,000			

출처 : 문희수, “국제관계에 있어서 청·일전쟁(1894~1895)에 관한 지도와 통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4집 1호, 2002. p. 300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반환하면서 일본인들은 강대국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외신상당하면서 군비증강에 전력했다. 일본은 기존 육군의 7개 사단을 13개 사단으로 증강하고 각 부대장비의 질도 향상시켰다. 해군은 청일전쟁 승리로 청국군함 11척을 수중에 넣고 청일전쟁 전비에 해당하는 2억 1,310만 엔을 투자하여 전함 4척, 1등순양함 3척, 2등 순양함 3척, 3등 순양함 3척, 수뢰포함 1척, 구축함 23척 등 총 106척을 건조하였다. 이러한 군비증강의 결과로 1903년경 일본은 15만 명 이상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684문의 대포를 갖춰 10년 만에 2배 이상의 전력증강을 달성하였다.³⁶⁾ 그러나 당시 러시아의 병력은 1백만이 넘었으며 34만 5천명의 예비병력이 있었고 해군력도 영국, 프랑스, 독일 다음으로 세계 4위에 해당될 정도로 우세했다. 극동에서 일본 해군력은 26만 톤이었고 러시아는 19만 톤이었지만 러시아는 추가로 32만 톤의 발트해와 흑해함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4개의 주요 조선소가 있어 함정건조와 수리가 가능했으나 일본은 전함이나 일등급 순양함이 파손되면 수리할 조선소도 수리능력도 없었다.³⁷⁾

36) 藤原彰, 전계서, pp. 119~121.

37) 강성학, 전계서, pp. 290~291.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신형함정의 양적 비교에서 일본은 당시 러시아와 거의 유사한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삼국간섭은 일본에게 동아시아에서 적대적인 서구열강의 전투함대가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러시아가 삼국간섭 체제를 유지시킨다든가, 다른 해양국가와 동맹을 맺게 된다면 일본의 해군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그러나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체결할 경우, 영일동맹 측이 러프동맹 측보다 월등히 우세한 해군력을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을 우호세력화 함으로써 해군전력 면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우세한 상황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일동맹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강경노선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선제 기습공격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영국이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기여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은 15,000톤급 전함 6척을 영국에서, 9,900톤급 중순양함 6척을 영국·프랑스·독일에서, 쾌속 순양함 3척을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확보했다. 또한 영국은 아르헨티나가 주문하여 이탈리아에서 건조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7,800톤급 장갑순양함 2척을 일본이 러시아보다 먼저 구입하도록 지원했다. 이렇게 일본이 아르헨티나 장갑순양함을 구입하자 러시아는 이 함정들이 일본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격침시키려고 했다. 러시아의 공격정보를 입수한 영국은 영국의 전함(King Alfred)으로 하여금 일본으로 향해하는 장갑순양함을 호송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국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없도록 영국과

<표 2> 1901년 이후 진수된 함정을 중심으로 한 각국 해군력 비교

구 분	영 국	미 국	독 일	프랑스	러시아	일 본
전 함	26	20	18	7	6	5
장갑순양함	33	13	8	12	4	6
합 계(척)	59	33	26	19	10	11

※ 출처: 佐藤鐵太郎, 『帝國國防史論(下)』(東京: 原書圖書房, 1979), pp. 226~227.

이탈리아 승조원들을 장갑순양함에 함께 탑승시켜서 일본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칠레가 주문하여 영국에서 건조 중이던 칠레의 12,000톤급 전함 2척을 러시아가 구입을 시도하자, 영국이 러시아보다 먼저 이 전함들을 매입하여 일본에게 다시 팔았다.³⁸⁾

영국의 도움으로 구입한 칠레의 12,000톤급 전함 2척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다음 일본해군이 러시아 뤼순함대를 압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일본의 접근을 막기 위해 뤼순항 부근에 기뢰를 부설했고, 일본해군도 출항하는 러시아 군함을 폭파하기 위해 기뢰를 부설하였다. 양국이 부설한 기뢰로 인하여 일본은 전함 2척을 그리고 러시아는 전함 1척을 잃게 되었다. 당시 전함은 해전의 핵심세력이었기에 기뢰의 피해로 인하여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과 러시아의 전함 비율이 6:7에서 순식간에 4:6으로 변화되어 일본은 전력면에서 러시아에 비해 대단히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영국의 도움으로 칠레의 12,000톤급 전함 2척

<표 3> 전쟁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해군력 비교

구 분	일 본		러시아(극동함대)	
	척 수	톤 수	척 수	톤 수
전 함	6	86,055	7	84,130
장갑순양함	8	73,377	4	44,210
경순양함	12	42,934	7	38,822
구 식 함	8	20,300		
포 함	8	14,617	7	8,279
구 축 함	19	5,869	27	7,938
수뢰(어뢰)정	26	3,091	10	1,195
합 계	83	246,233	62	184,574

※출처 : 해군본부, 『일본·영국 해군사 연구』,(대전 : 해군본부, 1997), p. 50.

38) 해군대학, 『세계해전사』(대전 : 해군대학, 1999), p. 144.

(日進, 春日)을 확보하여 연합함대에 배속시킴으로써 일본전함의 공백을 적시에 보강할 수 있게 되어 우세한 전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공세 전략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

극동에서 일본이 러시아보다 우세한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영일동맹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다. 군함을 설계해서 건조하기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이던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한다. 러일전쟁 이전까지 일본은 순양함정도의 전투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의 지원을 통해 일본이 단기간에 순양함급 이상의 주력함을 확보하여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었던 점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지원을 통해 확보된 해군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선제 기습공격은 물론 해상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해군의 해상통제권을 바탕으로 일본육군도 한반도와 만주에 상륙하여 러시아 해군으로부터 보급로 차단에 대한 우려 없이 압록강 강변에서 북상하여 뒤순항을 탈환하기 위한 要塞 攻城戰과 만주에 집결한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영일동맹은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선제 기습공격을 실시하면서 육군보다는 해군력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영일동맹은 전쟁발발은 물론 일본의 해상통제권 확보와 나아가 러시아 해군과 해상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5. 러시아 함대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 견제

전쟁초기부터 해전과 육전에서 계속적으로 일본에 패하자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극동으로 파견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1841년의 해협조약과 1858년 파리조약에서의 흑해중립화규정을 제기하면서 군함이 흑해를 빠져

나가는 것이 하나의 개전사유(Casus Belli)에 해당되기 때문에 러시아 흑해함대의 해협통과를 불허하겠다고 했다.³⁹⁾ 이처럼 영국이 러시아의 흑해함대 해협통과 불허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리상으로 훨씬 먼 발틱해에 위치한 함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발틱함대를 지휘한 로제스트벤스키(Rozhdestvenski) 제독은 러시아 태평양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1904년 10월 15일 출항했다. 신형 전함 5척을 포함한 전함 7척, 순양함 7척, 구축함 7척과 보조함 9척 등 총 38척으로 구성된 발틱함대가 18,000마일을 항해해야 하기 때문에 함정의 수리와 보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영국이 제3국들에게 발틱함대의 보급을 지원하지 못하게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여 발틱함대 장병들은 긴 항해에서 오는 피로감과 더불어 원활한 보급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아울러 영국은 러시아 함정들이 무전기를 통해 교신하는 내용을 감청했고 발트해에서 영국척자들이 발틱함대 정보뿐만 아니라 항해에 관련된 모든 행동들을 수집했으며 이러한 정보 중 어떤 것은 일본 측에 넘어갔다.⁴⁰⁾

발틱함대는 10월 21일 북해의 도거뱅크(Dogger-Bank) 해역에서 영국어선을 일본 어뢰정으로 오인하여 이들에게 발포하자 영국의 언론들은 발틱함대를 ‘미친개 전대’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발틱함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주도했다. 영국 언론들은 러시아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심지어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국언론의 영향으로 유럽 신문들도 대형제목으로 소란스럽게 러시아 발틱함대의 행위를 조롱하고 있었다.⁴¹⁾ 이 사건으로 러시아와 영국의 관계가 악화되자 발틱함대는 스페인 비고(Vigo) 항에서 1주일을 지체해야만 했다. 악화된 여론을 바

39) 원철, “독일과 러·일전쟁,” 『러·일전쟁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역사적 성격과 현대적 의미』(한국정치학회 21세기평화연구소 주최 러·일전쟁 발발 10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2004년 11월 20일), p. 7.

40) 콘스탄틴 플레샤코프 저, 표완수·황의방 역 『짜르의 마지막 함대』(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pp. 131~133.

41) 콘스탄틴 플레샤코프, 상게서, pp. 146~149; 강성학, 전게서, p. 516.

탕으로 영국함대가 발틱함대에 대하여 시위기동(스페인 근해 항해시), 봉쇄 위협(탕헤르 입항시) 및 감시(발틱함대에 관한 정보를 일본에 전달) 등의 적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발틱함대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였다.⁴²⁾

11월 4일 탕헤르에 도착한 로제스트벤스키는 영국의 수에즈운하 통과금지 및 운하 통과시 예상되는 위협 때문에 신형 전함을 포함하여 중요한 함정 16척은 희망봉을 돌아가게 하고 노후한 군함과 수송함들은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로제스트벤스키는 마다가스카르의 노시베(Nosi Be)에서 이듬해인 1905년 1월 9일 운하를 통과한 함정들과 합류하면서 뒤순함대의 전멸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당시 석탄보급은 독일 선박회사가 공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석탄공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위한 협상을 하는 중에 독일의 정치적 농간으로 인하여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열대의 더위와 나쁜 음식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디며 발틱함대 장병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⁴³⁾

1905년 3월 16일 노시베를 출항하여 4월 14일 베트남의 캄란(Camran)에 도착한 발틱함대는 프랑스의 외압으로 인하여 다시 인근의 반퐁(Van Fong)으로 이동한 다음 후속부대인 네보가토프(Nebogatov) 전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다시 약 한달정도 더 머물렀다. 5월 9일 네보가토프 전대와 합류하여 총 53척으로 증강된 발틱함대는 석탄을 가득 싣고 블라디보스톡을 향해 5월 14일 캄란을 출항했다.

한편 일본 연합함대는 뒤순함대가 궤멸된 1905년 1월부터 1905년 2월까지 일본에서 모든 전투준비를 마치고 진해만으로 이동하였다. 도고 헤이하찌로(東郷平八郎) 제독은 ‘T자전술’과 ‘7단계전법’ 등을 준비하여 발틱함대를 격멸하기 위한 기동과 사격훈련에 전념하였다.⁴⁴⁾ 1905년 5월 27일 12시

42) 해군대학, 『世界海戰史』(해군대학, 1999), pp. 153.

43) 이정수, 『대해전』(서울: 정음사, 1986), p. 157.

44) ‘T자전술’은 화력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적 앞에서 함대의 진형을 T가 되게 90°회전하는 것이며, ‘7단계전법’은 공격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발틱함대를 따라 점차 복상하면서 주간공격에 이어 야간에도 계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기 위해 7단계, 즉 4회의 주간전투와

경 일본 연합함대는 대한해협을 통과 중이던 발틱함대를 발견하고, “T자 전술”을 구사하면서 쓰시마 해전은 시작되었다. 14시 8분에 발틱함대가 먼저 사격을 시작했지만 도고제독은 기다리다가 14시 18분에 최적사거리인 5,500미터에 도달하자 사격명령을 하달하면서 발틱함대의 기함인 수보로프(Suvorav)와 제2전대의 선도함인 오슬리아비아(Osliabya)에 사격을 집중시켰다.⁴⁵⁾ 연합함대의 집중포격으로 오슬리아비아는 침몰되었고 기함인 수보로프도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이 된 로제스트벤스키 제독을 태운 채 진형에서 이탈하자 나머지 함정들은 분산되어 북쪽으로 도주했다. 18시 이후 일본 연합함대는 ‘7단계전법’에 따라 연속적으로 공격을 실시했다. 살아남은 발틱함대 함정들은 필사적으로 북쪽으로 도주했으나 일본해군이 추격전을 실시한 결과 5월 28일 아침 네보가토프함을 포함한 전함 3척과 순양함 3척이 항복했다. 부상당한 로제스트벤스키를 태우고 도주하던 구축함은 나포되었으며 항복을 거부한 함정들은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격침되거나 스스로 자폭했다.

도고제독의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연합함대의 기동술과 함포사격술도 뛰어난 시모세 폭약을 사용한 일본의 포탄은 수많은 파편을 뿌리며 러시아 함정의 갑판 가득히 적재한 석탄에 화재를 유발시켰다. 화재로 인하여 함정의 상부구조물이 화염에 휩싸이고 페인트에서 나오는 유독한 연기로 인하여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⁴⁶⁾ 쓰시마해전은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열한 해상결전을 통한 섬멸전이었으며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일본해군의 승리였다. 로제스트벤스키가 지휘한 38척의 전투함 가운데 34척은 침몰, 자침, 또는 나포 당하였다. 발틱함대는 2명의 제독을 포함하여 4,83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고 5,917명이 포로로 잡혔다.

3회의 야간공격으로 구성된 전법을 의미한다.

45) 이정수, 전제서, pp. 167~168.

46) 김태준, “쓰시마 해전승패에 대한 분석,” 『軍事史 研究論叢』, 2004 제4호, (서울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4), pp. 212~218.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연합함대는 3척의 어뢰정이 침몰하였고 3척의 주력 함정들이 경미한 손상을 받았으며 11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⁴⁷⁾

6. 맺 음 말

영일동맹과 러일전쟁은 영국과 러시아간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적인 틀 속에서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본 논문은 당시 서구 열강의 일등국으로 평가되던 영국이 어떻게 하여 동양의 약소국에 불가했던 일본과 동맹을 체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동맹의 배경과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러일전쟁에서 영일동맹이 일본 해군승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규명하였다.

먼저, 영일동맹의 배경을 요약하면, 삼국간섭이후 러시아는 러청밀약(1896)으로 동청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여 점차 만주에 세력을 확장하였고, 의화단 사건이 발생하자 철도보호 명목으로 만주를 점령하였다. 러시아의 만주점령과 뤬순항에 대한 함대배치는 영국에게 극동에서의 균형유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함대파견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당시 영국은 다른 곳에서 프랑스와 독일 해군의 증강을 고려해야 했기에 영국이 중국으로 전투함을 보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럽의 바다에서 영국의 우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전투함을 추가로 파견할 여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는 일본과 동맹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둘째,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 견제를 살펴보면, 영일동맹은 러시아

47) David C. Evans · Mark R. Peattie, *KAIJUN*(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97), p. 124.

와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프랑스를 효과적으로 중립화시켰다.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 미국을 하나의 준동맹 파트너로 끌어들이 수 있었으며 독일도 엄정 중립을 고수하게 만들었다. 영일동맹은 러시아가 누리던 삼국간섭체제의 외교적 우위로부터 사실상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처하게 함으로써 러일 간 대립관계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결과적으로 영일동맹은 열강들의 개입가능성을 제거시켜 줌으로써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전쟁결정을 촉진시켰다.⁴⁸⁾ 이점은 기존의 러일전쟁 발발원인의 3가지 이유(일본의 북진정책, 러시아의 남진정책 그리고 베조브라조프 일파의 모험주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영국은 일본의 해군력증강, 특히 최신예 함정구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영국의 지원으로 단기간에 러시아와 상대할 수 있는 해군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극동에서 러시아보다, 특히 주력함에서 우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전쟁직전까지 일본은 순양함급 전투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기에 일본이 군함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준 영국의 지원과 러시아에게는 전함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영국의 방해공작은 해전승패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해군의 공격을 피해 러시아 함정들이 웨이하이웨이로 피신할 경우 일본이 러시아 함정을 격침시키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영국은 일본에게 러시아 함정이 입항할 경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러시아 함정을 억류해 두겠다고 약속했다.⁴⁹⁾ 뤼순항에 있던 20척의 러시아함대가 황해 해전에서 일본해군의 공격을 피해 도주한 뒤 뤼순항으로 복귀한 함정은 9척(전함 5, 순양함 1, 구축함 3척) 뿐이었다. 제3국항에 입항한 나머지 11척(전함 1, 순양함 3, 구축함 5척)은 영국이 약속한 대로 억류되었기에 뤼

48) 영일동맹이 보다 강력한 적과 싸우려는 일본인들의 결의를 강화시켜 주었다는 점에서는 보편적으로 역사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강성학, 전제서, p. 299.

49) 콘스탄틴 플레샤코프, 『짜르의 마지막 함대』, 표인수·황의방 역(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3), pp. 108~110.

순함대 전력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넷째, 발틱함대에 대한 영국의 전략적 견제는 쓰시마해전에서 일본해군의 승리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발틱함대는 영국의 의도적인 견제 때문에 극동으로 향진하는 동안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영국의 방해공작으로 발틱함대는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이로 인하여 더위와 질병에 지친 러시아 장병들은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러시아해군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었던 반면에 일본해군이 발틱함대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준 결과가 되어 쓰시마해전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

그 외에도 영일동맹은 일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영일동맹은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재정난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여론도 일본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기습공격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반응은 침략국을 규탄하고 희생당사국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기습공격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기보다는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오인하여 발포했던 도거뱅크 사건이 발생하자, 영국의 언론은 러시아 함대를 ‘미친개 전대’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러시아함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주도했다. 영국의 언론보도는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발틱함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이러한 점들은 동맹이 전쟁수행을 위해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에 해당된다.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합리적 필연성에 의해 침략자이다.”⁵⁰⁾ 따라서 국가가 생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자국의 국력을 증대시키면서 부족한 부분은 동맹을 이용하는 것이다. 러일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타국의 선의에 기대하기보다는 자구수단을 구비해야 하는 것인데, 먼저 자력으로 국력을 배양하고 부족부분은 동맹을

50) Markus Fischer, “Machiavelli’s Theory of Foreign Politics,” *Security Studies*, Vol. 5, No. 2, Winter 1993, p. 276.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다. 삼국간섭으로 열강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은 힘만이 정의이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전력증강과 동시에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국이었던 영국과 동맹을 통해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영국의 지원과 협조를 확보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0년전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세를 설명하는 용어가 세력균형이었으며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주변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상호 협력과 견제를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에게 북한위협은 여전히 하며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 아울러 냉전의 후유증으로부터 국력을 회복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 우리는 현재 유일 최강이라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위협을 고려할 경우, 한미동맹은 전쟁억지를 유지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아울러 주변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조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등 한국안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미동맹의 중요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5. 2. 21, 심사완료일 : 2005. 3. 26)

주제어 : 세력균형, 영일동맹, 삼국간섭, 러일전쟁, 쓰시마해전

<ABSTRACT>

The Effects on the Japanese Naval Triumph by the Anglo-Japanese Alliance

Kim, Tae-jo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Great Britain, alarmed by Russian penetration into Central Asia and the Far East, parted from its splendid isolation policy and extended friendly gesture to Japan which was eager to eliminate Russian influence from Korea and *Manchuria*. Great Britain anxious to maintain Status quo in Asia, had tried to use Japan to check Russian challenger. British statesmen felt that the Empire's interests were jeopardized and challenged by Czarist Russia in Constantinople, Afganistan and most all in India. However Great Britain and Japan were not ready to Russian threat in *Manchuria* and Korea. The British desire to safeguard the Empire's interests in Central Asia and China against Russian competition apparently coincided with Japan's policy of continental expansion.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Japan has had common interests with Great Britain in the Far East to prevent Russia from expanding southward. Russian policy of southward expansion has had fatally threatening the interests of both powers Great Britain and Japan in *Manchuria* and Korea. As result of such a situation, Japan approached Britain signed an alliance with Great Britain in 1902. By concluding the defensive alliance with Great Britain, Japan made France as well as Germany to declare a neutral position from Russia which kept the relationship of the demand of Tripartite. The Anglo-Japanese Alliance thus made a strategic environment

favorable to Japan and encouraged Japan to attack Russia. And Great Britain, as an ally, gave many aides to Japan through the Russo-Japanese War as follows.

In economic field, Japan could secure war loan from Great Britain and it could persuade USA to take part in the Japanese War Loan. In military field, Great Britain not only supported positively the reinforcement of the Japanese Naval Forces which was a critical element to defeat Russian Baltic Fleets in the battle of *Tsushima*, but also stood strongly by the side of Japan through the war. In diplomatic field, Great Britain did not allow the Russian Baltic Fleets passing through Suez Canal for Asia, and not supply the required war materials as well as coals to them. The mass media under the influence of Great Britain was on the side of Japan and it made Russian soldiers depressed and demoralized.

We are in a military alliance with USA, so called the only ultra super power. Because the ROK-US Alliance is thought the prop of war restraint on Korean peninsular, as well as an only means to prevent military intervention from our neighbour countries. In this contexture, Keeping a stable ROK-US Alliance is estimated to make a strategic environment favorable to Koreans. We should not give North Korea as well as our neighbor countries any misperception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weakening the relationship of the ROK-US Alliance.

Key Words : Balance of Power, Anglo-Japanese Alliance, Demand of the Tripartite, Russo-Japanese War, Battle of *Tsushima*